

18.07.23(월)~18.07.27(금)

1. 전주 주가 추이

단위: pt, 원, 십억원, 배, %

	현재가	Mkt. Cap.	PBR (2018F)	PER (2018F)	ROE (2018F)	Performance					Weekly Net Buy			공매도 거래대금	
						1 W	1 M	3M	6M	YTD	Institution	Foreigners	Pension	1W	1M
KOSPI	2,295	1,425,217	1.0	9.4	11.3	0.3	-2.0	-7.9	-10.9	-7.0	791	10	-154	1,658	7,744
KOSDAQ	774	150,543	2.4	17.3	14.5	-2.2	-6.4	-12.7	-15.2	-3.1	-64	72	-14	547	2,210
보험	17,675	19,765	0.6	9.4	6.8	0.7	-1.5	-9.5	-19.1	-16.4	52	-34	7	13	97
증권	1,813	18,855	0.8	8.5	9.4	0.9	-6.5	-16.0	-24.5	-8.7	15	-5	2	19	110
삼성생명	95,700	19,140	0.6	8.1	7.1	-1.6	-3.4	-17.9	-26.4	-23.1	2	-11	-2	2	29
한화생명	5,130	4,456	0.5	7.8	6.0	4.3	-3.0	-17.1	-27.4	-25.8	-3	5	-3	1	6
ING생명	40,850	3,350	0.9	9.8	9.3	2.0	-4.1	2.3	-25.0	-23.5	-1	1	-0	0	5
동양생명	7,560	1,220	0.5	8.5	5.8	4.6	1.2	-9.1	-2.2	-0.5	0	1	-0	0	1
삼성화재	270,500	12,815	1.0	11.7	9.0	1.1	1.5	1.1	-3.2	1.3	14	-5	-2	3	22
DB손해보험	61,600	4,361	0.8	6.3	13.1	1.5	3.4	-0.5	-12.9	-13.5	21	-15	6	2	15
현대해상	35,450	3,169	0.9	5.7	15.6	4.1	2.5	-5.0	-21.4	-24.6	18	-9	8	3	11
메리츠화재	18,650	2,120	1.1	6.8	16.8	2.2	-2.9	-9.0	-22.1	-20.6	-0	0	0	0	4
한화손해보험	6,550	765	0.6	5.2	11.9	0.6	-1.4	-12.7	-25.6	-19.5	0	-0	0	0	2
삼성증권	32,300	2,884	0.6	7.8	8.1	-0.3	-7.3	-12.1	-25.0	-11.7	1	-1	-3	3	13
미래에셋대우	8,170	5,378	0.7	8.7	8.4	3.0	-4.8	-16.2	-26.1	-11.1	6	0	2	8	43
NH투자증권	13,100	3,686	0.8	8.6	9.1	0.0	-11.5	-15.2	-22.7	-5.8	4	-8	1	3	23
한국금융지주	71,900	4,007	1.0	6.9	14.8	0.7	-13.6	-20.3	-18.8	4.2	21	28	-1	5	29
키움증권	94,600	2,091	1.1	7.3	17.9	1.1	-10.8	-21.5	-15.2	8.0	5	-1	1	1	10

자료: 개별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2. 전주 동향

보험	<p>보험업종 강세 시현: 전주 보험업종은 강세를 시현하였음. KOSDAQ 시장 급락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로 Valuation 부담이 적고 규제와 관련된 부정적 투자심리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판단됨. 한화손보의 신종증권 발행 성공으로 보험사들의 보완자본 조달 여건이 확인되었고 RBC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축소되었기 때문</p> <p>▶ 삼성생명, 즉시연금 급감원만 부결... 예시금액만 지급 결의: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관련 급감원의 일괄구제안을 부결하였음.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임. 다만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 차액(370억원)만 지급하는 안을 가결하였음. 이에 급감원은 즉시연금 건 소멸시효 중단 등 대응할 것으로 예상</p> <p>▶ 한화손보 신종자본증권 발행조건 확정: 오는 31일 1,900억원 규모를 사모 방식으로 발행예정. 만기 30년, 5년 콜, 5년 리셋 및 10년 스텝업 조항 포함. 발행금리는 연 5.6%. 일정 수준의 운영손실은 불가피하겠지만 연간비용 부담은 세후 23억원 내외로 추정되어 비용부담보다는 RBC 안정성 확보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됨</p> <p>▶ 현대해상 신종증권 발행 국내로 선회: 해외 발행금리 상승 및 환율변동성 증가가 예상되며 해외 대신 국내에서 발행하고 발행규모도 최대 7억달러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축소하였음</p>
----	---

증권	<p>증권업종 강세 시현: 전주 증권업종은 강세를 시현하였음. KOSDAQ 시장이 크게 하락하며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증권업종은 이미 충분한 조정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홍콩 H 지수가 반등하며 ELS 운영에 대한 우려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판단됨</p> <p>▶ 금융위, 급감원 업무보고: 금융당국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는 1) 금융소비자보호 강화(판매규제 및 사후 권리구제 강화, 일괄구제제도 등), 2)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 조속 제정, 자본적정성기준 확정안 마련), 3) 금융회사 지배구조(지배구조법 개정안 9월 중 국회제출), 4) 인터넷 전문은행(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국회 논의 지원 및 협조), 5) ITRS17도입에 따른 감독 제도 개선(산출기준 완화, 경과조치 마련,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임</p>
----	--

3. 주간지표 업데이트

	전주	YTD	Monthly							Quarterly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누계	MoM	3Q17	4Q17	1Q18	2Q18	3Q18 누계	QoQ	
일평균거래대금	조원	17년대비,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9.4	4.2	13.0	12.4	14.3	15.0	12.4	9.1	-27.3	8.2	11.8	13.8	13.9	9.1	-35.1	
KOSPI	5.8	8.1	6.9	6.9	7.8	9.1	7.5	5.6	-26.0	5.2	6.0	7.0	8.1	5.6	-31.4	
KOSDAQ	3.6	-1.5	6.2	5.5	6.5	5.9	4.9	3.5	-29.3	3.0	5.8	6.8	5.8	3.5	-40.3	
신용잔고	조원	YTD,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11.0	12.2	11.2	11.3	12.2	12.5	11.8	11.0	-6.3	8.3	9.8	11.3	11.8	11.0	-6.3	
KOSPI	5.6	26.1	5.3	5.4	6.0	6.2	6.0	5.6	-5.7	4.0	4.5	5.4	6.0	5.6	-5.7	
KOSDAQ	5.4	0.7	5.9	5.9	6.2	6.3	5.8	5.4	-6.9	4.3	5.4	5.9	5.8	5.4	-6.9	
국고채금리[기말]	%	YTD, bp						%	bp					%	bp	
1년	1.80	-2.2	1.84	1.89	1.85	1.85	1.85	1.80	-4.8	1.53	1.85	1.89	1.85	1.80	-4.8	
3년	2.07	-4.8	2.27	2.22	2.22	2.20	2.12	2.07	-5.5	1.89	2.13	2.22	2.12	2.07	-5.5	
5년	2.32	-1.5	2.52	2.43	2.49	2.48	2.35	2.32	-3.1	2.08	2.35	2.43	2.35	2.32	-3.1	
10년	2.55	5.8	2.74	2.62	2.72	2.70	2.56	2.55	-0.5	2.37	2.47	2.62	2.56	2.55	-0.5	
약정 MS	%	17년대비, %p						%	%p					%	%p	
삼성증권	6.0	0.0	5.8	6.2	6.4	6.1	6.0	6.1	0.1	6.2	6.0	6.2	6.2	6.1	-0.1	
미래에셋대우	12.5	-0.1	13.2	13.1	13.2	12.8	12.3	12.4	0.0	12.7	13.2	13.3	12.8	12.4	-0.4	
NH투자증권	6.6	0.6	6.1	6.3	6.4	6.4	6.4	6.5	0.1	5.7	6.4	6.3	6.4	6.5	0.1	
한국금융지주	5.5	-0.3	5.5	5.5	5.5	5.2	5.1	5.3	0.2	6.1	5.8	5.7	5.3	5.3	0.1	
키움증권	16.7	0.2	17.5	17.1	18.5	18.2	17.9	16.8	-1.1	15.3	17.4	17.5	18.2	16.8	-1.4	

자료: KOFIA, Check, KRX

4. 금주 전망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8월 1일 BOJ의 통화정책 회의임. 만약 테이퍼링에 관련된 언급이 나온다면 엔케리자금 회수와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임. 한국의 경기가 매우 부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채권금리의 연동성은 축소되고 있지만 8월 31일 금통위 결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어 보험업종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삼성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관련 이사회 결의로 단기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비용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남아 있는 암보험 등의 분쟁 역시 보험사의 일방적 부담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됨. 이는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우려로 악화된 투자심리의 일정 부분 회복을 동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2분기 손해보험사 실적은 기존에 발간한 수치를 유지하며 신계약의 고성장 속에서 시책부담이 완화되고 자동차보험 손해율 부담이 전분기대비 축소되는 흐름을 전망하고 있음 우리는 배당수익률 4% 수준이며 P/E 6배, 그리고 2분기 지표 안정화, 3분기 이익의 전년동기 개선을 바탕으로 2위권 손보사에 대한 선호를 유지함. DB손보와 현대해상이 최선호임
----	---

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SDAQ 시장의 하락으로 증권업종의 투자심리는 전주 크게 악화되었지만 Valuation 부담이 축소된 상황에서 홍콩 H지수의 반등은 증권업종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주었다고 생각함 금주도 중국 제조업 PMI를 통해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영향이 반영될 것이고 BOJ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 환율 및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금주 증권업종은 자체적인 변수보다는 시장 변수의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증권업종은 2분기 이익의 전분기 대비 감소 뿐만 아니라 3분기 시장 변수 악화의 영향까지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장의 안정화가 나타나면 반등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함. 리스크 요인으로는 감독원의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신용이자율의 적정성 평가로 인한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임 우리는 발행어음을 기반으로 IB 및 Trading 부분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시현할 수 있고 배당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NH투자증권과 카카오뱅크를 통한 성장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최선호를 유지함
----	---

5. 금주 일정

일자	국가	내용	전기치	예상치
7월 31일	일본	BoJ 금리결정	-0.10%	-0.10%
7월 31일	유로존	7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2.0%	2.1%
8월 1일	중국	7월 Caixin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51.0	50.8

6. 전주 뉴스/자료 Review

뉴스	<p>▶ '7월 임시국회' 놓고 온도차 보이는 '금융업' (이뉴스투데이) 인터넷뱅 '온산분리 규제 완화' 통과 기대... 보험·카드 어려움 예상되는 개정안에 '노심초사'</p> <p>▶ 금융위·금감원 25일 정부위 업무보고...핵심쟁점 (연합인포)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온산분리 규제 완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부활 등 주요 입법과제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 부과 등 주요 현안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p> <p>▶ 지배구조 규제 강화하는 정부·여당...타킷은 결국 '삼성' (인베스트조선) 공익재단 의결권 행사금지에 보험업법 개정안까지. 삼성생명-삼성전자 고리 끊어라 '압박' 강화. 분할합병때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막는 법도 나와. '삼성부터 잡아야...' 지배구조 개편 파급효과 극대화</p> <p>▶ 한화손보, 1900억 코코본드 발행 (파이낸셜) 한화손보, 이달 말 1900억원 규모의 국내 신종자본증권 발행 계획</p> <p>▶ 삼성화재 서교빌딩, GRE파트너스가 산다 삼성화재, 서교빌딩 약 650억원에 매각</p> <p>▶ 태영건설, 한국투자금융 주식 814억원어치 매각 (머니투데이) 태영건설, 한국금융지주 주식 114만주(지분 2.05%)를 814억원(이날 종가기준)에 처분한다고 23일 공시. 투자이익 실현을 위한 매각이라는 설명. 매각작업은 이날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개월동안 진행되며 장내 매매 및 블록딜 등으로 매각할 계획.</p> <p>▶ 보험사, 美 금리상승에 자본확충 국내로 '유턴' (연합인포맥스) 한화손보 신종자본증권 발행조건확정. 오는 31일 1,900억원 규모를 사모 방식으로 발행예정. 만기 30년, 5년 콜, 5년 리셋 및 10년 스텝업 조항 포함. 발행금리는 연 5.6%. 현대해상도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 검토했으나 국내 발행으로 선회</p> <p>▶ 대형 증권사, NCR 관리 '골머리' (한국경제) 모험자본 공급하러더니...사모사채는 전액 자본서 차감. 中企 신용공여 수단으로 대부분 사모사채 인수하지만 증권사는 자본 줄여 건전성 악화. "사모사채 자본 차감비를 낮춰야"</p> <p>▶ NH투자증권, 선박금융 부활에 '눈독' (머니투데이)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으로 선박금융 활성화·제2의 항공기금융 기대</p> <p>▶ 기록적 폭염에 긴장하는 보험사...일반손해율 우려 (브릿지) 가축재해보험의 손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p> <p>▶ 공정위 순환출자 규제강화...삼성·현대차 방안은 (연합인포맥스) 공정위, 의결권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존 순환출자 금지할 가능성</p> <p>▶ 금융권 최대 쟁점 '온산분리 완화' 국회처리 속도내나 (세계일보) 하반기 정부위 인적구성 개편... 통과 청신호. 새 정부위원장장 핀테크 육성 적극. 반대 의원들은 다른 상임위 이동. 시효 끝난 기록법 부활 여부 관심. 금융소비자보호법 줄줄이 대기. 개인 신용등급 따라 금리 큰 차이. 김상조 "공정위 차원 살펴볼 것"</p> <p>▶ ING생명, 오는 9월 사명변경... '오렌지생명' 유력 (매일일보) 신규 브랜드 론칭 작업 진행 중...9월 3일 사명 변경 발표</p> <p>▶ 이틀 앞으로 다가온 삼성생명 이사회...즉시연금 사태 분수령 (조선비즈)</p> <p>▶ '실손보험 갈아타기' 퇴직시 동일 담보로만 전환 가능 (대한금융신문) 오는 10월 개인-직장간 갈아타기 시행. 보험금청구일 기준 전환심사 여부 결정. 기존 실손 해지하면 퇴사 때 재개 못해</p> <p>▶ 윤석현 "증권사 신용거래 고금리 등 모니터링" (연합인포맥스) 금감원 정부위 업무보고에서 증권사 신용거래 고금리에 대한 질의 나와. 윤원장은 모니터링 하겠다 답변</p> <p>▶ 윤석현 "즉시연금 분쟁 불복 금융사, 소송해도 불이익 없다" (머니투데이) 근거없는 즉시연금 일괄지급 지침 논란에 한발 물러서..."소송해도 검사·제제하지 않는다"</p> <p>▶ 라오스댐 원인에 촉각 ... 손보사, 바짝 긴장 (디지털타임즈) SK건설 "흙댐 일부 유실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범람 아닌 붕괴뎀 보험금 수천억원. 코리안리는 최대 100억원 정도를 보상하게 되었음.</p> <p>▶ [단독] '출범 1돌' 카카오뱅크 내년 상장 준비 (한겨레) 출범 한돌을 맞는 카카오뱅크, 올해 손익분기점 달성을 전제로 내년에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기로</p> <p>▶ 삼성생명, 즉시연금 금감원안 부결...예시금액만 지급 결의 (머니투데이) 삼성생명 이사회 "금감원 권고안 법적근거 명확치 않아", 일괄구제안 부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즉시연금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 차액(370억원 수준)만 일괄지급하는 수정안 가결</p> <p>▶ 금감원, 즉시연금 16만건 소멸시효 중지 착수할 듯 (머니투데이) 자살보험금 사태 이후 법 개정...효력중단 첫 사례될 듯</p> <p>▶ 윤석현 금감원장, 내달 24일 보험사 CEO 만난다 (EBN)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즉시연금에 보험사 어려움 호소할 듯</p> <p>▶ 삼성증권 신규영업 6개월 정지 (매경) 금융위원회, 중징계 확정</p> <p>▶ NH증권 항공기금융, 첫 엑시트...IRR 15%달성 (더벨) 에미레이즈 B777 1기, 2년 반만에 매각...70억 에퀴티 자금 회수</p>
----	--

7. Global Peers

		현재가 (Local)	Mkt. Cap. (USD bn)	PBR (FY18F)	PER (FY18F)	ROE (FY18F)	ROA (FY18F)	Performance (%)				
								1 W	1 M	3M	6M	YTD
한국	KOSPI	2,295		1.0	9.4	11.3	3.1	0.3	-2.0	-7.9	-10.9	-7.0
	보험	17,675		0.6	9.4	6.8	0.7	0.7	-1.5	-9.5	-19.1	-16.4
	삼성생명	95,700	17.2	0.6	8.1	7.1	0.7	-1.6	-3.4	-17.9	-26.4	-23.1
	한화생명	5,130	4.0	0.5	7.8	6.0	0.4	4.3	-3.0	-17.1	-27.4	-25.8
	ING생명	40,850	3.0	0.9	9.8	9.3	1.1	2.0	-4.1	2.3	-25.0	-23.5
	동양생명	7,560	1.1	0.5	8.5	5.8	0.4	4.6	1.2	-9.1	-2.2	-0.5
	삼성화재	270,500	11.5	1.0	11.7	9.0	1.4	1.1	1.5	1.1	-3.2	1.3
	DB손해보험	61,600	3.9	0.8	6.3	13.1	1.2	1.5	3.4	-0.5	-12.9	-13.5
	현대해상	35,450	2.8	0.9	5.7	15.6	1.2	4.1	2.5	-5.0	-21.4	-24.6
	메리츠화재	18,650	1.9	1.1	6.8	16.8	1.6	2.2	-2.9	-9.0	-22.1	-20.6
	한화손해보험	6,550	0.7	0.6	5.2	11.9	0.9	0.6	-1.4	-12.7	-25.6	-19.5
	증권	1,813		0.8	8.5	9.4	1.0	0.9	-6.5	-16.0	-24.5	-8.7
	삼성증권	32,300	2.6	0.6	7.8	8.1	0.9	-0.3	-7.3	-12.1	-25.0	-11.7
	미래에셋대우	8,170	4.8	0.7	8.7	8.4	0.7	3.0	-4.8	-16.2	-26.1	-11.1
	NH투자증권	13,100	3.3	0.8	8.6	9.1	1.0	0.0	-11.5	-15.2	-22.7	-5.8
	한국금융지주	71,900	3.6	1.0	6.9	14.8	1.2	0.7	-13.6	-20.3	-18.8	4.2
	키움증권	94,600	1.9	1.1	7.3	17.9	2.6	1.1	-10.8	-21.5	-15.2	8.0
일본	Nikkei225	22,713		1.7	16.4	10.2	2.0	0.1	2.0	1.1	-3.9	-0.2
	보험	1,046		0.8	10.8	7.0	0.7	4.9	2.9	0.1	-3.6	-1.3
	Dai-ichi Life Holdings	4,676	29.9	2.6	54.5	4.7	2.6	-2.5	7.8	24.7	33.9	59.2
	Japan Post Insurance	2,415	13.0	0.7	15.8	4.6	0.1	6.3	4.0	-10.3	-17.8	-8.8
	Tokio Marine Holdings	5,413	36.5	1.0	14.8	7.3	1.1	4.9	1.0	4.7	2.8	5.3
	증권	392		0.8	9.4	8.2	0.6	-1.5	-0.9	-9.0	-17.8	-9.7
	Nomura Holdings	535	17.5	0.7	7.4	9.0	0.6	-2.3	-0.9	-15.4	-26.4	-19.6
	Daiwa Securities	655	10.0	0.8	10.1	8.6	0.6	-1.0	2.5	-2.7	-16.8	-7.4
	SBI Holdings	2,946	6.0	1.5	12.8	11.9	1.2	2.1	2.5	6.5	14.6	25.0
	Hang Seng	28,779		1.3	11.6	12.8	1.1	2.0	1.5	-5.0	-13.2	-3.8
중국/홍콩	상해A주 지수	3,010		1.4	11.5	12.2	1.1	1.6	2.1	-6.8	-19.2	-13.1
	보험	147		1.2	11.0	11.3	1.9	1.5	0.2	-5.5	-25.7	-18.6
	China Life	20	91.0	1.4	11.6	12.6	1.5	0.4	-0.2	-8.4	-24.5	-18.3
	Ping An Insurance	74	166.8	2.1	11.8	19.3	1.5	3.0	2.6	-3.7	-20.8	-9.1
	AIA	68	105.3	2.3	18.7	13.0	2.6	1.0	3.4	-0.8	2.8	2.7
	증권	93		1.1	14.9	7.8	51.7	1.6	0.0	-20.3	-35.2	-26.3
	CITIC Securities	16	28.9	1.0	12.8	8.5	2.0	2.6	1.9	-14.4	-28.5	-2.4
	Haitong Securities	8	14.7	0.6	8.6	7.7	1.8	1.3	2.7	-24.1	-40.1	-29.9
	Huatai Securities	12	15.1	0.8	9.7	8.8	2.0	1.8	0.2	-20.8	-35.4	-21.1
	S&P500	2,837		3.2	17.7	18.7	3.6	1.2	5.1	6.3	-1.2	6.1
미국	보험	387		1.3	12.0	11.2	#N/A	1.7	5.5	-2.5	-9.1	-3.8
	AIG	54	48.7	0.7	11.2	6.8	0.9	0.7	2.6	-3.6	-16.1	-8.9
	Metlife	45	46.0	0.9	8.9	10.4	0.7	2.4	3.0	-6.6	-17.4	-10.6
	Prudential Financial	98	41.2	0.8	8.0	11.8	0.6	2.5	5.2	-8.8	-22.2	-14.7
	증권	207		2.2	15.1	13.1	1.3	0.7	3.4	0.5	-5.8	2.1
	JP Morgan	115	391.0	1.6	12.6	13.5	1.2	4.5	11.2	5.0	-1.3	7.4
	Goldman Sachs	237	93.0	1.2	9.8	12.7	1.0	3.3	7.7	-1.1	-11.6	-6.9
	Charles Schwab	53	71.0	3.8	21.6	19.2	1.3	-0.4	1.4	-6.0	-3.0	2.5
	MSCI Europe	132		1.8	14.7	10.4	1.0	1.2	2.7	1.4	-2.7	0.1
	보험	74		1.1	10.7	12.5	0.5	1.1	2.5	-5.7	-8.0	-3.4
유럽	Allianz	186	93.0	1.2	10.7	11.4	0.9	2.4	7.2	-4.5	-8.9	-3.0
	AXA	21	59.6	0.7	8.5	8.8	0.6	1.8	0.9	-10.2	-21.5	-14.6
	Prudential plc	1,776	60.3	2.6	11.9	23.2	0.5	-0.8	0.5	-4.8	-7.5	-6.8
	Munich Re	186	32.4	1.0	11.0	9.0	1.1	1.7	4.2	-2.0	-2.6	3.0
	증권	73		1.1	14.8	6.5	0.4	1.2	3.9	-2.9	-11.9	-7.0
	UBS	16	61.9	1.1	11.6	9.3	0.5	4.8	6.1	-0.6	-19.9	-9.1
	Credit Suisse	16	40.2	0.9	13.3	6.8	0.4	2.7	5.3	-5.7	-14.7	-8.8
	Deutsche Bank	11	25.5	0.4	23.2	1.0	0.1	3.2	16.9	-7.4	-32.4	-33.3

자료: 한국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한국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이외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주: 아시아는 금요일 증가기준, 미국 및 유럽시장은 목요일 증가기준

8. 주요국 금리 동향

			금리 수준 (%)					변동폭 (bp)					
			현재	1W	1M	3M	6M	연초	1W	1M	3M	6M	YTD
한국	국고채	1 Year	1.798	1,822	1,849	1,860	1,800	1,853	-2.4	-5.1	-6.2	-0.2	-5.5
		3 Year	2.067	2,090	2,140	2,222	2,222	2,134	-2.3	-7.3	-15.5	-15.5	-6.7
		5 Year	2.320	2,330	2,395	2,500	2,495	2,347	-1.0	-7.5	-18.0	-17.5	-2.7
		10 Year	2.550	2,540	2,608	2,740	2,680	2,467	1.0	-5.8	-19.0	-13.0	8.3
일본	국고채	1 Year	-0.113	-0.125	-0.129	-0.134	-0.136	-0.145	1.2	1.6	2.1	2.3	3.2
		10 Year	0.104	0.035	0.039	0.055	0.078	0.048	6.9	6.5	4.9	2.6	5.6
중국	국고채	1 Year	2.937	3,137	3,305	2,988	3,536	3,834	-20.0	-36.8	-5.1	-59.9	-89.7
		10 Year	3.530	3,516	3,576	3,648	3,949	3,902	1.4	-4.6	-11.8	-41.9	-37.2
미국	국고채	1 Year	2.399	2,389	2,312	2,229	1,776	1,732	1.0	8.6	17.0	62.3	66.7
		10 Year	2.977	2,893	2,826	2,957	2,660	2,405	8.3	15.1	2.0	31.7	57.1
유럽	국고채	1 Year	-0.534	-0.525	-0.564	-0.548	-0.566	-0.611	-0.9	3.0	1.4	3.2	7.7
		10 Year	0.406	0.370	0.321	0.571	0.629	0.427	3.6	8.5	-16.5	-22.3	-2.1

자료: Bloomberg

주: 아시아는 금요일 증가기준, 미국 및 유럽시장은 목요일 증가기준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강승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 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